



정교회주보

제2533호
2025년 7월 13일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제4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스테파노스 수도자
(제4조 • 조과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성 교부들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디도 3,8~15 (봉)539
- 복음경 : 마태오 5,14~19 163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디도 3,15)

사진 설명

에피타피오스

에피타피오스는 숨을 거두신 그리스도를 붉은색 벨벳 천에 금실로 수놓아 담아낸 성물이다. 성 대 금요일 오후와 저녁(성 대 토요일)에 사용한다.

성 대 금요일 오후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의식 및 대만과에서 에피타피오스를 꽃으로 장식한 무덤(꾸부클리오)에 안치한다. 저녁의 장례 의식에서는 에피타피오스가 안치된 꾸부클리오를 들고 성당 밖에서 행렬을 하는데, 이는 주님을 애도하고 부활의 희망을 염원하는 것이다.

행렬 다음에 성당으로 들어갈 때, 입구에서 에피타피오스가 안치된 꾸부클리오를 높이 들어 올려 모든 신자가 그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절 기간에는 에피타피오스가 제단 위에 놓여,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상기시켜 준다.

사진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국으로 반출되었다가 1997년, 47년 만에 돌아온 에피타피오스이다.

맑은 음성을 들어 보셨나요?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걸까?" "그분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혹시 걱정과 잡념이 흙탕물처럼 마음을 뒤덮고 있어 하느님의 맑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스마트폰, TV, 인터넷에서 볼거리를 찾고, 넘치는 정보 홍수에 떠밀려 하루가 덧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업무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라는 구실을 만들며 마음속 불편함을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이런 바쁜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느님과 만남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의 맑고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마태오 5,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오염되지만, 하느님께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깨끗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시편 51,10)

성 안토니오스 대수도자는 "많은 말을 피하라. 침묵은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마음도 고요한 침묵 속에서 점차 정화될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들어야 오염된 물이 맑아지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에 맑은 물을 채워넣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제 성서 한 구절이라도 읽으며 잠시 묵상하고 짧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맑은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영적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다니는 성당이 성장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요한 신부 씬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만은 신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을 소개합니다.

일 자리를 얻으려고 면접을 보러 가면, 대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성장하는 데 당신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존하고 더 널리 전파할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성당을 발전시키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첫째로, “당신의 신앙을 살아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신앙을 실천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향상시키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인들의 삶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당의 예배에 참석하라!”입니다. 단순히 주일 성찬예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대로 성당에서 거행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만과, 조과, 철야예배, 성모 기립찬양, 축일이나 대 사순절의 예배 등등...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겸손과 존경과 감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곁에서 이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북돋아주는 것이 됩니다.

셋째로는, “자신이 다니는 성당의 적극적인 참여자, 교인이 되라!”입니다. 참가하고, 자원 봉사자가 되고, (세대별 또는 교사, 성가대, 자선단체 등) 여러 모임의 일원이 되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교회를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친구나 친척만이 아니라 성당의 여러 사람과 서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까지 관심을 넓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성당에 새로 나온 사람이나 찾아온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보에서 계속)

주간 예배 안내

* 7월 17일(목)

성 마리아 대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수요일 줌 모임 안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영성생활과 수도생활에 관한 대주교님의 강론이 온라인(줌)으로 이루어 집니다. 세례신자, 예비신자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신부님이나 아가티 수녀님에게 문의하시면 링크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 여름 캠프 준비 봉사활동

7월 18일(금)~20일(일) 일정으로 서울성당 장년회와 청년회 회원들이 춘천 성당 여름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청소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교인이 아닌 비정교인도 우리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니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7월 18일까지 받습니다.

-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일정: 7/25(금)-27(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7/28(월)-8/3(일): 초등학생 (참가비 18만원)
8/4(월)-6(수): 중고등학생 (참가비 6만원)

■ 서울 성당 세례성사

지난 7일(월), 성 막심 성당에서 최 막심, 첸 디오니시, 이 빅토리아 3명이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된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테오도시오스 신부와 요르기아 사모 방한

그리스 테살로니키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테오도시오스 신부와 요르기아 사모가 3주간의 체류 일정으로 방한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성의 샘터

빛을 보려면

실루아노스 사부는 끊임없이 슬픔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 그래서 그는 광야의 은수처 밖으로 나가길 원치 않았다. 피치 못해 밖에 나가야 할 경우에는 가림막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눈을 고집스럽게 가리느냐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사부가 대답했다.

“내가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빛을 볼 자격이 있겠는가?”